

# 손보사, 차별화 승부수... '배타적 사용권' 경쟁 불 붙는다

당국, 배타적 사용권 보호기간 연장 제도 확대 따른 상품개발 심화 예고  
올해 획득 6건 중 4건은 'DB손보' 반려인 입원후 위탁비 등 차별화

손해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금융당국이 배타적 사용권 보호 기간 확대를 추진하면서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손보사들은 총 6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작년 같은 기간(3건)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업계의 '특허권'이다. 보험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상품이나 보장 방식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다. 소비자들에게는 새로운 상품 선택의 기회를, 보험사 입장에서 시장 선점 효과와 상품 차별화를 동시에 안



손해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해 다른 회사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Chat GPT가 생성한 배타적 사용권 이미지.

겨준다.

DB손해보험은 올해 손보업계가 획득한 배타적 사용권 6건 가운데 4건을 가져갔다. 지난 1월에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개별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방식'으로 올해 손보업계

첫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연이어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와 '백반증 진단비'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반려인 입원 후 통원 시 위탁비용 보장 영역을 확대해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

에 기여하고자 신담보를 개발했다"며 "저출산 시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 및 백반증 진단비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도 손보업계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실적은 활발했다. 작년 손보업계는 총 24건을 기록해 생보업계(10건)에 비해 2배 넘는 성과를 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3월까지 손보업계가 6건을 확보한 반면 생보업계는 1건에 머물러 있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도 확대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이 심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을 기존 3~12개월에서 6~18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혁신성을 갖춘 보험상품에 더 오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배타적 사용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겠

다는 취지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신년사에서 "저출산·초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상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적극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저출산·초고령화 관련 보장에 가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 상대적으로 긴 보호 기간을 부여 받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보호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장 선점 효과가 커지는 만큼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위한 새로운 담보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 보호 기간이 확대되면서 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생길 것"이라며 "기존 3, 6, 9, 12개월로 배타적 사용권을 구분하던 점수표 대신 새로운 기준과 평가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과거 노하우 발휘... 공제상품 강화로 흑자전환 목표”

**새마을금고 새 얼굴**

**이만중 금빛새마을금고 이사장**

17년만에 이사장 복귀, 감회 남달라  
조직문화 개선·수익성 확대 등 추진  
복지사업 강화·조합원 배당도 확대



이만중 금빛새마을금고 이사장

제로 진행했다. 후보자 4명이 이름을 올리면서 서울 지역 금고 중 가장 치열한 양상을 나타냈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총 3143명이다. 이 이사장은 1354표(43.07%)를 득표해 최종 당선됐다.

이 이사장은 임기동안 ▲조직문화 개선 ▲흑자전환 ▲조합원 편의성 제고 ▲수익성 확대 등 4가지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이 처음 금고를 창립했을 때는 자본금 7억원, 임직원 4명으로 출

범했다. 지난 36년간 자산가치는 533배, 임직원은 23명으로 늘었다. 그가 남다른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다.

올해 흑자전환의 포석을 준비하는 해로 정했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연체율 상승에 16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채권매각 등의 경로를 활용해 부실 사업장을 처분하고 상환 여지가 높은 사업장을 살려낼 계획이다.

이 이사장이 눈여겨 보고 있는 분야는 '공제'다. 공제란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저축성공제 상품을 주력으로 불황에도 현금이 이탈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 과거 전국우수공제 금고를 만든 노하우를 발휘하겠다는 포부다.

이 이사장은 "아무리 건전하고 우량한 금고라도 한 번 추락하면 반대에 몇 십년이 걸린다. 공제 등 안전한 현금자산을 축적해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금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생활과 함께 조합원 편의성 제고

도 추진한다. 현재 금빛새마을금고는 조합원들을 위해 노래교실과 드럼교실, 무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추후 서예교실과 그림교실을 신설해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익성을 확대해 넓은 주차장과 최신 시설을 갖춘 건물로 금고를 이전하는 것 또한 생각 중이다.

사회공헌활동도 강화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썸도리운동'을 시작으로 성장한 새마을금고 나눔 정신이 흐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동안 업무과약을 위해 시간을 쏙아야 하지만 임직원과 논의해 복지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합원 배당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이사장은 "과거 수기장부와 주판으로 금고를 운영하던 시절에는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도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수월한 시대가 됐다"면서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고 과거의 요령을 적용해 금고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하나금융그룹**

**장애인·뉴시니어 등  
일자리 인턴십 모집**

230명 선발, 지원금·교육 제공

하나금융그룹이 장애인·경력보유여성·청년·뉴시니어(5060세대)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15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턴십에는 총 2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인턴 채용이 완료된 사회적기업에는 3개월간 급여를 지원하며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2개월 급여를 지원한다.

참여기업의 대표자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무 특강과 조직역량 강화 교육도 월 1회 제공해 기업의 인재 확보와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인턴십 참여자들에게는 급여 외에도 월 30만 원 한도 내 ▲맞춤형 성장지원금(자격증, 건강관리, 멘토링 등) 월 15만 원 ▲소상공인 가족 참여자 지원금 월 10만 원 ▲다자녀가정 경력보유여성 교육지원금 월 30만 원이 지급되며, ▲월 1회 공통 역량 강화 교육 ▲월 2회 인턴십 유형별 맞춤형 특강 등 실무 적응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을 통해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청년, 뉴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이 혁신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금융그룹 공식 홈페이지 및 하나 파워 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115@

## 교통카드 빅데이터 민간 개방... 신개념 서비스 개발 기대

국토부·TS, 분석 환경 제공  
개인정보는 철저히 암호화

앞으로 교통카드 이용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대중교통 승·하차 시간 및 장소, 이용 패턴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에서는 신규 버스 노선 도

입 등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현행 대중교통법상 민간에는 가공해 집계한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다.

국토부는 규제를 풀어 민간도 교통카드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 10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TS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이날부터 보안이 갖춰진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민간에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한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

안대책 등이 갖추어진 시설이다.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교통카드 빅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철저히 암호화될 수 있도록 암호화된 상태.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공간에서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만 반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방으로 민간 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연구와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은 시간대 및 노선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DRT) 서비스와 공유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연계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교통카드 데이터는 사람의 이동경로를 파악해 통행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데이터로 그동안 민간에는 공급자 중심의 분석자료 제공으로 이용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민간 역량을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원하는 지표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신규 대중교통 서비스 개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